



김영태
(제22대 부회장)



김혜영
(제26대 부회장)

한국영어교육학회 50년사

들어가는 말

올해는 한국영어교육학회가 1965년 1월 22일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리고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교육 기관인 『동문학』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지 132년째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학회창립 50년의 발전과정을 조명해 보는 일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한국영어교육학회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1965년 1월 22일 대학 간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The University Language Laboratory Association of Korea: 이하 ULLA라 칭함)가 창립되었으며, 이어서 어학실험실 뿐만 아니라 대학 영어교육 연구 전반에 관심을 모으면서 1972년 8월 12일 학회 명칭도 한국영어교육학회(The Colleg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이하 CETA라 칭함)로 바뀌게 된다. 그 후 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9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비하여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문호 개방의 필요성 때문에 1994년 7월 23일 학회 영어 명칭을 ‘KATE’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로 개칭하게 된다.

한국영어교육학회는 ULLA, CETA, KATE 시기 50년을 통해, 26대를 거치면서 22명이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현재까지 26대 총 22명의 회장 중, 수도권에서 14명, 충청 1명, 호남 5명, 영남 2명이 있었다. 2명 이상의 회장을 배출한 학교는 전남대 4명, 서울대 3명, 한양대 2명, 동국대 2명이었다. 영남지역 최초의 회장은 제19대 이효웅(해양대) 회장이 있었고, 이어서 제25대 오준일(부경대) 회장이 있었다. 22명 회장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영어교육학회를 세계 속의 학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영어교육학회의 역사적 발전을 알아보는 연구가 있어 왔다. 한국영어교육학회 제15대 회장 최용재는 학회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영어교육학의 발달’(배두본, 1995a), ‘영어교육 연구 방법의 발달’(김충배, 1995), ‘영어 습득과 학습 이론의 발달’(김임득, 1995), ‘영어 교수 방법과 교수방법론 연구의 발달’(권오량, 1995), ‘영어능력 평가의 발달’(최용재, 1995) 및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발달’(배두본, 1995b)이라는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영어교육학 여러 분야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외에 한국영어교육학회의 30년사를 정사(正史)가 아닌 야사(野史) 중심 즉, 관련 증빙 자료를 인용하는 식의 딱딱한 역사 논문이 아닌, 영어교육학회의 초창기 어려웠던 시절의 숨은 이야기를 다룬 신상순(1994)의 연구도 있었다.

한국영어교육학회 제21대 전병만 회장은 학회창립 40주년 기념 특별호를 통해 『영어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을 조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영어교육학회의 업적 및 전망에 관한 연구(김영태, 2006; 유제명, 2006)가 있었다. 또한 한국영어교육학회의 학문적 성과에 있어서, 듣기(차경환, 2006), 말하기(박종원, 2006), 읽기(오준일, 2006),

쓰기(강동호, 2006), 문법 (심진영, 2006), 어휘(박준언, 2006), 교재(이성희, 2006), 평가 (이영식, 2006), 특수 목적 영어 학습(전지현, 2006), 영어교육의 방향 및 인접 학문의 역할(손동철, 김기호, 최연희, 2006), 연구방법(김진완, 2006)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전임회장단의 KATE 40년 회고록이 있었다.

또한 2013년 12월 13일에는 한국 영어교육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한국 영어교육,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한국영어교육학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에 한국영어교육학회 50번째 생일을 맞아 한국영어교육학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다음에서는 ULLA, CETA, KATE의 시대적인 변천사와 함께 한국영어교육학회의 학술활동 즉 학회지, 학술대회 등의 발전 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국영어교육학회의 발전 과정

ULLA 시기

196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어학실험실(language laboratory)을 비치하고 있었던 학교는 서울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에 불과하였다. 어학실험실이 군 관계 학교에 제일 먼저 도입된 것은 군대식 교수법(Army Method)에서의 언어훈련의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학생용 어학실험실이 아니라 정부 관리들이 해외출장가기 전에 어학훈련을 받던 장소이었다. 60년대 초에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 어학실험실이 설치되었다. 1964년까지 지방의 국립 대학교 중에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어학실험실이 비치되어 어학실험실 시설관리, 운용방법 및 어학실험실을 활용한 수업방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신상

순, 1994). 제13대 조명원 회장의 KATE 40년 전임회장단 회고록(2006)에 의하면, ULLA가 탄생한 1960년대만 해도 자연과학 분야의 실험실처럼 어학실험실을 이용하면 언어교육 곧 외국어학습 성과를 성큼 이루는 요술의 상자처럼 여겨졌던 시기였다.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ULLA)는 어학실험실을 비치한 국내 각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어학실험을 중심으로 하여 효율적인 대학영어교육의 연구와 실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대학들이 모여 어학실험실 운용에 관한 학문적·기술적 지식 및 정보를 상호교환하자는 취지에서 어학실험실 협의체를 구성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회의 개인회원은 국내 각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 교수 중심의 제한적인 학회였다.

ULLA 시기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약간 명, 감사 2명이었다(창립회칙: 1965. 1.22). 초대회장으로는 연세대 전형국 교수가 선출되어 1971년까지 초대에서 3대까지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ULLA 동안 두 명의 회장이 있었는데, 두 번째 회장 전남대학교 신상순 교수는 1971년 1월 4일에서 5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제7회 협의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년도 초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ULLA 임원진은 1968년 교육부령(제251호)이 제정 공포되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수정되고 고등학교 제2 외국어 과목이 필수로 부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7회까지 본 협의회 모임이 있었는데 아시아재단, 한미교육위원회(Fulbright Commission)와 주한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의 후원으로 본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회계연도는 학년도를 따랐다. ULLA 시기에 한국의 영어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1966년 9월에 미 평화봉사단원이 각 시도의 고등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미 평화봉사단원 측의 사전

준비 부족과 우리 영어교육계의 수용 태세 및 연구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미 평화봉사단원은 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교사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CETA 시기

ULLA 시기부터 꾸준히 본 학회 명칭인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The University Language Laboratory Association)와 학회의 성격을 수정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대학 영어교육 연구에 관심을 모으면서 제4대 신상순 회장 재임 시 1972년 8월 12일 학회 명칭도 한국영어교육학회(The Colleg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CETA)로 바뀌게 되었다.

CETA는 영어교육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회원 자격은 처음에는 ‘국내의 각 급 학교 교직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당분간 대학 재직자에 국한함)’(제1차 개정: 1973. 8. 11)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제2차 개정: 1975. 8. 1)로 변경되었다. 즉, 학회 명칭 변경으로 학회 성격이 어학실험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영어와 영문학 모두를 포함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으나 우리말 명칭과 달리 영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TA 초기에는 잠정적으로 대학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제3차 회칙 개정(1981.8.1)에서는 석사학위를 가진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또는 영어교육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여 명실 공히 한국영어교육학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약간 명, 상임이사(총무, 재무, 편집, 섭외) 약간 명, 감사 2명(제2차 개정: 1975.8.1)이었으며 각종 운영위원회(장기계획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편집위원회, 출판위원회, 회원증식위원회, 재정위원회, 프로그램위원

회, 대학교육위원회, 중등교육위원회)(제3차 개정: 1981.8.1)를 통해 세부 업무를 추진하였다. 제4~5대 신상순 회장 재임 시 초대 총무를 역임한 제13대 조명원 회장의 전임회장단(2006) KATE 40년 회고록에 의하면, 조명원 회장은 요즘과 같이 2년이 아닌 6년 동안 장기 총무를 하였다고 한다.

제4~5대 신상순 회장부터 제15대 최용재 회장까지 10명의 회장이 있었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하기 방학 중에 개최하다가 매년 7월 둘째 주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익년 7월말까지(제2차 개정: 1975. 8. 1)에서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제3차 개정: 1981. 8. 1)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제14대 박남식 회장과 제15대 최용재 회장의 전임회장단(2006) KATE 40년 회고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TA는 태생적으로 ‘College English teachers’만을 위한 배타적인 학회였다. 즉, College란 용어에 너무 속박되어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 영어교육의 저변의 확대에 의해 새로운 학회의 태동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KATE 시기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될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사에 대한 문호 개방의 필요성 때문에 제16대 김충배 회장 재임 시절인 1994년 7월 23일 학회 영어 명칭을 KATE(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로 개칭하였다. KATE 시기는 제16대 김충배 회장부터 제26대 최연희 회장까지 11명의 회장이 학회 운영을 해 오고 있다.

KATE 회원은 대폭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인이나, 혹은 단체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후에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였다. 그리고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제6차 개정: 1999. 3. 1.)

본 회의 임원은 제6차 회칙 개정(1999. 3. 1.)과 제7차 회칙 개정(2003. 3. 1.)을 통해 회장 1인, 부회장(편집출판담당 부회장, 기획조정담당 부회장, 연구개발담당 부회장, 섭외홍보담당 부회장) 등 4인 이내, 상임이사(총무, 재무, 국제, 섭외, 연구, 학술정보, 편집) 30인 이내, 감사 2인, 전임회장 중심의 자문위원과 편집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편집위원회와 본 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혹은 소위원회가 있었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제6차 회칙 개정(1999. 3. 1.)으로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다. 정기총회는 제6차 회칙 개정(1999. 3. 1.)으로 달리 예고가 없는 한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다음 해 2월 둘째 주 금요일에 학술 발표회와 더불어 개최되다가, 제7차 회칙 개정(2003. 3. 1.)으로 본 회의 학술대회 마지막 날에 개최 되고 있다.

그 후 제8차 회칙 개정(2006. 6. 24.)으로 부회장은 편집·출판담당 부회장, 기획·조정담당 부회장, 연구·개발담당 부회장, 섭외·홍보담당 부회장, 국제·정보담당 부회장 등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서, 제22대 고정석 회장 재임부터 5인의 부회장이 위촉되었다.

한국영어교육학회 학술활동의 발전 과정

ULLA, CETA, KATE 시기 동안의 학술활동의 발전을 학회지 『영어교육』의 발간, 학술대회 개최, SIG(Special Interest Groups) 활동, 학회 소식지(KATE Newsletter 혹은 KATE Forum)로 나누어 알아보하고자 한다.

학회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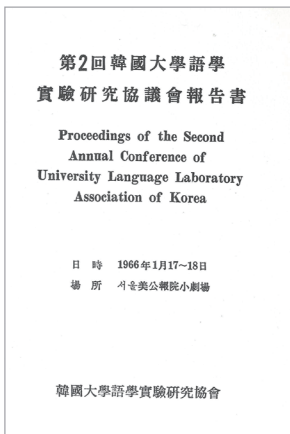
ULLA 시기의 학회지 발간

초창기의 학회지는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의회 보고서』(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Conference of University Language Laboratory Association of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제 강연과 협의회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 형태로서, 연구발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의회 보고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연간 1회씩 발간되었다.

협의회 초기에는 주로 어학실험실 현황보고와 기자재 운용실태 등에 관한 보고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협의회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주제를 영어영문학 전반의 교육 문제로 확대하고, 미 평화봉사단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영어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협회 명칭을 변경하여 어학실험실이 없는 대학과 어학실험실이 비치되어 있는 중·고등학교도 회원으로 포함하려는 변화의 요구가 있었다.

CETA 시기의 학회지 발간

CETA 시기인 제9회와 제10회 협의회 보고서의 표지는 『영어교육: 한국영어교육학회보고서』로 표기되어 과도기임을 보여주었다. 1975년 간행된 제11호 학회지부터 표지의 국문학술지명이 『영어교육』, 영문학술지명이 *English Teaching*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13호를 계기로 매년마다 2월과 8월 연중 두 번 발행되는 학회지로 발전하여 제49호까지 발간되었다.



제2회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의회 보고서 표지



KATE 시기의 학회지 발간

제14대 박남식 회장 재임 시 1991년 3월 7일자로 파리에 있는 International Serials Data System(ISDS)에 가입하고 학회지 『영어교육(English Teaching)』이 ISSN 1017-7108을 부여받아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술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5년 제16대 김충배 회장 재임 시 제50권 『영어교육』부터 1호(3월 31일), 2호(6월 30일), 3호(9월 30일), 4호(12월 31일)로 연간 4회 발간되었다. 또한 이전까지는 가을호를 국제호로 발간하였으나, 제19대 이효웅 회장 재임 시 56권 1호 봄호를 국제호로 발간하여 봄, 가을 연 2회 국제호를 발간하였다. 그 후 제25대 오준일 회장 재임 시 68권 4호 겨울호를 국제호로 발간하여 현재는 봄, 가을, 겨울 연 3회를 국제호로 발간하고 있다.

본 학회의 학회지 『영어교육』은 기본적으로 많은 응용 언어학 분야의 저널들(TESOL Quarterly 포함)이 채택하는 APA Style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학회지 『영어교육』의 본문 활자 크기가 작아서 논문 읽기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60권 1호부터 논문의 체제를 변경하여 본문의 활자체를 9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크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학회지를 읽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활자체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학회지의 양적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회지 판형도 이에 맞춰 기존의 신국판에서 크라운 변형 판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60권 1호 투고논문부터 2인 이상의 공저논문의 경우, 논문작성에 대한 참여 정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저자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 매년 한국영어교육학회 제정 ‘우수논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 전임회장들이 본 학회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출해 주신 성금으로 만들어졌다. 수상자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여 편집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매년 여름 정기 학술대회에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영어교육』은 전자문서로도 발행되어, 온라인 논문(e-journal)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학회 홈페이지와 교보 스킨라 등을 통하여 국내 독자들에게 원문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2006년부터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문 심사과정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오픈엑세스(open access) 방침을 따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술지 2호부터 최근 발행된 69호까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 개방화 요구에 따라 2009년 9월 제23대 안병규 회장 재임 시 국제학술정보서비스기관인 EBSCO host의 Electronic Journal Service(EJS)에 등재시키는 데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교육 데이터베이스인 ERIC에 등재되어 해외에 *English Teaching*을 알리는 첫 계기가 되었다. 『영어교육』은 *English Teaching*으로 해외 저명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외 영어교육자들이 논문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 제26대 최연희 회장 재임 시 학술지의 단독 홈페이지(journal.kate.or.kr)를 해외 표준 방식으로 구축하여, 키워드만으로 우리 학술지의 논문이 해외 어디서나 검색 가능하게 되었다.

학술대회 개최

ULLA 시기의 학술대회

제1~3대 전형국 회장 재임 시 7회의 협의회, 제4대 신상순 회장 재임 시 1회의 협의회로 총 8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대학 교수 중심의 협의회 성격을 가진 단체로 매년 1회 개최하였으나, 1971년에는 2회 개최되기도 하였다. 제1회 협의회는 1965년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에 걸쳐 각 대학의 교

양영어 담당 교수에게 어학실험실 기자재를 다루는 방법 및 이들 기자재를 활용한 선진 영어 교수모델을 전수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신상순, 1994). 모임의 참석자는 어학실험실이 비치된 서울의 몇몇 대학 교수들과 경북대, 부산대와 전남대 등 지방 3개의 국립 대학교 교수로 30명 미만이었다.

CETA 시기의 학술대회

제4~5대 신상순 회장 재임 시 1회의 협의회, 2회의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6~7대 이종찬 회장은 국내학술대회를 연 1회 개최하였다. 제8대 송병학 회장은 3회의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980년부터 국내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이 정례화되기 시작했다. 제9대 배양서 회장은 국내학술대회 3회, 국제학술대회 2회, 총 5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제10대 송요인, 제11대 공영일, 제12대 윤종혁, 제13대 조명원, 제14대 박남식 회장도 재임기간 동안 4회의 학술대회를, 제15대 최용재 회장은 국내 3회, 국제 1회를 개최하여, 국제학술대회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제4~5대 신상순 회장 재임 시 제9회 협의회(1972년 8월 11일~12일)에서 협의회 의 명칭을 ‘한국영어교육학회’로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종래와는 달리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이 아니라 직접 실험을 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들 결과들이 교육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전국에 보급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각 대학 영어교육과를 위한 모델 교육 과정, 교양 영어를 위한 방안을 대학 당국에 제시하여 이를 반영시키고, 대학 교양 영어를 담당하는 강사를 위한 연수회를 주선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학회의 활동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배양서, 1973).

제6~7대 이종찬 회장 재임 시 제13회 학술대회(1976년 8월 6일~7일)의 특징은 종래의 영어교육, 영어학 중심의 발표 이외에 영문학 분야의 교육관련 연구 발표, 특히 중등학교 교과서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영미시 교육, 영

미소설 교육 및 영미희곡 교육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신상순, 1994). 제9대 배양서 회장 때는 2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회는 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학자와의 합동회의였고, 제2회는 일본인 교수와 북경 파견 UCLA 교수 등 수명이 참석하였다(배두본, 1995).

KATE 시기의 학술대회

KATE 시기에 처음에는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병행해서 실시하다가 이후에는 모든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였다. 제16대 김충배 회장 때부터 국내학술대회 3회, 국제학술대회 1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제17대 김임득 회장까지 이어졌다. 제18대 이흥수 회장 및 제19대 이효웅 회장 재임 시는 2회의 국내학술대회와 2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제20대 권오량 회장 때에 2003년 2월 및 6월 학술대회를 모두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국제학술대회를 6월 한 번만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2월 중·하순에 한 번, 6월 마지막 주말에 한 번 개최하였다. 2월 대회는 국내학술대회, 6월 대회는 국제학술대회로 개최되었다. 제20대 권오량 회장의 전임회장단(2006년)의 KATE 40년 회고록에 의하면, 2월 대회를 마치고 6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여 국내외 발표자 섭외와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2004년에는 연 1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학술대회 준비 위원장을 형편에 따라 임원이나 회원 중에서 위촉하였으나, 편집부회장을 제외한 3명의 부회장의 역할이 애매하여, 편집부회장 외에 3명의 부회장이 교대로 학술대회 준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술대회가 국내학술대회에서 국제학술대회로 바뀌므로 인해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회칙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제7차 회칙 개정(2003. 3. 1.)을 통해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21대 전병만 회장부터 현재까지 매년 1회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와 더불어, 제20대 권오량 회장 때인 2003년 8월 연변대학에서 KATE와 중국 연변대학의 공동 학술대회(KATE-YBU Joint Conference)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의 취지는 KATE와 연변대학교수와의 학문적 교류뿐만 아니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영어교사와 교수들과의 영어교육에 대한 토론을 위한 것이었다. KATE와 중국 연변대학의 공동 학술대회는 제20대 권오량 회장 재임 시 1회(2003년)와 2회(2004), 제21대 전병만 회장 재임 시 3회(2005)와 4회(2006) 이렇게 매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나, 학술대회 개최 시기가 임원진이 교체된 후 1달 안이어서 제22대 고경석 회장 때부터는 회장이 바뀌는 해는 거르고 격년으로 학술대회를 치르고 있다. 2013년 오준일 회장 재임 시 제8회 KATE-YBU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2015년 제26대 최연희 회장 이하 임원진이 준비 중인 KATE 국제학술대회는 특별히 50주년을 기념하여 그 주제를 ‘Shaping the Past Leading the Future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KATE 50th Anniversary’ 로 선정하였다. 기조연설(keynote speech), 기조 강연(plenary speech) 및 주제 강연(featured speech) 등의 초청발표와 주제별 분과발표, 수업시연 및 포스터발표 등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KATE의 50년간의 활동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SIG(Special Interest Groups) 운영

제20대 권오량 회장 재임 시, 영어교육학의 세부 영역 전공자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학문적 체계를 보다 더 확고하게 정립하자는 취지하에 Special Interests Group(SIGs)을 구성하였다. SIG의 주

된 역할은 분야별 관심사와 쟁점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회원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SIG는 학회 내의 관심분야별 그룹으로서 유사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회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의 SIG 학술대회는 2003년 2월 15일 국제학술대회 전날인 2월 14일에 제1회 SIG Joint Workshop/Seminar라는 명칭으로 연세대에서 개최되었다. 참여한 SIG는 ‘English for Special Purposes,’ ‘Testing & Evaluation,’ ‘ELT Materials’와 ‘ELT Research Information’이었다. 같은 해 6월 26일 국제학술대회 전날 충남대에서 제2회 SIG Joint Workshop/Seminar가 개최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2004년부터 SIG는 연례행사가 되어 대개 1, 2월에 개최되었다.

2003년 제1회 SIG 학술대회 이후의 SIG 개최 현황을 보면, 제20대 권오량 회장 재임 시 3회, 제21대 전병만 회장부터 연 2회 개최되어 제26대 최연희 회장 현재 14번의 SIG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 제22대 고경석 회장 재임 시에 SIG Joint Workshop/Seminar는 SIG Conference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제1회부터 제2회까지는 대학 교수 중심으로 영어교육학 세부 분야에서 전문성을 신장함으로써 학문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제3회 대회부터는 대학 교수 이외에 대학원생과 중·고등학교 교사 등을 포함하여 토론의 장을 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회 장소도 국제학술대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수도권 7회, 충청 2회, 호남 2회, 영남 2회, 제주 1회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SIG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terial & Curriculum Development,’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Teaching Young Learners,’ ‘English Literature & Culture Education,’ ‘Corpu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CT),’ ‘Teacher Development,’ ‘ELT Methodology,’ ‘English Testing’과 ‘Critical Pedagogy’ 12개이다.

뉴스레터 발간

CETA 시기의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1992년 제15대 최용재 회장 재임 시 *CETA Newsletter* 1호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1992년에는 3개호, 1993년에는 2개호를 발간하였고 1994년도 3월 6호를 끝으로 그 명칭을 *KATE Newsletter*로 전환하였다. 초기에 발행된 뉴스레터는 총 7쪽으로 회장 인사말, 학회소식, 회원동정, 학술대회 발표요약문, 북리뷰, 학술지 원고모집, 학회발표모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KATE 시기의 뉴스레터

1994년 11월 7호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발간되기 시작한 *KATE Newsletter*는 표지와 목차를 갖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5년에는 4개호, 1996년도 4개호,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연 3호를 발간하다가 2011년부터 연 2호를 발간하고 있다. 1998년 제17대 김임득 회장 재임 시 *KATE Newsletter* Volumn 20부터는 흑백 복사 인쇄물의 형태에서 컬러 오프셋인쇄와 표지를 갖춘 책자의 형태로 디자인이 개선되었다. 이후 *KATE Newsletter*는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단순한 뉴스 제공과는 다른 학술지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여기에 게재되는 논문들이 그 이름 때문에 소식지에 올리는 수필 정도로 오해를 받아 원고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3년 제20대 권오량 회장 재임 시 27권 1호부터는 *KATE Newsletter*에서 *KATE Forum*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뉴스레터의 번호 체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겪었다. 창간호부터 1998년까지는 매호마다 번호를 각각 부여하였으나, 1999년 제18대 이홍수 회장 재임 시부터는 학술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해에 권 번호 하나를 부여하고,

여기에 다시 1호부터 3호까지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23호부터는 23권 1호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뉴스레터는 1994년 이래 전문 영어 원고로 작성되었고, 2015년 6월 발행된 39권 1호의 구성은 1) General Information on KATE 2) President's Message 3) Feature Article 4) In the Classroom 5) Book Review 6) KATE News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제25대 오준일 회장 재임 시부터 *KATE Forum*은 최근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PDF버전으로 디지털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종이 인쇄를 통한 우편 발송은 중단되었다. 현재는 학회 홈페이지와 회원 이메일을 통하여 링크를 제공하는 형태로 온라인 발송을 하고 있다.

한국영어교육학회의 현재

한국영어교육학회 초기에는 30여명의 교수 중심 학회에서 현재는 약 3,000여명의 국내외 회원이 있는 대규모 학회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구성원을 보면 대학교수 이외에도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유·초·중등영어교사, 영어교육전문가, 영어교육산업체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참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제14대 박남식 회장의 전임회장단(2006) KATE 40년 회고록(2006)에서 “회장단의 활동에 여성회원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한 점이 후회스럽다. 회원의 절반이 여성이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회장단의 반은 여성회원의 몫으로 배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 것이다... 학회의 회장도 능력에 따라 여성회원과 남성회원이 번갈아 가며 맡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장래에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회장 자리를 남녀회원에게 고루 배분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KATE 창립 이후 최초의 여성 부회장이 탄생한 것은 제18대 이흥수 회장 재임 때 김남순 부회장(한남대)으로 여성 회원도 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 후 암묵적으로 제19대 이효웅 회장부터 부회장 중에서 최소한 1명은 여성 부회장의 몫이었다. 제22대 고경석 회장까지는 여성부회장이 1인이었으나, 제23대 안병규 회장에서는 2인, 제24대 김진완 회장에서는 1인, 제25대 오준일 회장에서는 4인, 현임 제26대 최연희 회장에서는 2인이 여성 부회장이다. 제18대에 여성 부회장 이후, 제26대에 드디어 KATE 최초의 최연희(이화여대) 여성 회장이 탄생하였다. KATE에 여성 회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한국영어교육계에서 능력있는 여성 학자들의 진입이 급증하였으며, 그 활동 범위와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제26대의 임원진을 보면 회장과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임원진 중 여성이 27명으로 남성임원진의 총 숫자의 두 배가 넘어 변화된 시대상을 실감케 한다.

본 학회 제26대는 이화여대 최연희 회장 아래 편집출판담당 배태일 부회장(영남대), 기획조정담당 김혜영 부회장(중앙대), 연구개발 담당 정태영 부회장(육군사관학교), 섭외홍보담당 강동호 부회장(서울과기대)과 국제정보담당 이희경 부회장(고려대) 등 5명의 부회장과 상임이사가 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회방향 및 학회 현안에 대해 본 학회 전임회장을 역임한 조명원(전 전남대) 외 12인의 자문위원이 자문을 맡고 있다.

또한 본 학회 학회지 『영어교육』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출판담당 배태일 부회장(영남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27명을 국내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회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영어교육관련 해외

저명 학자 17인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영어교육학회를 모 학회로 하여 창립된 유관학회는 아래와 같으며, 본 학회와 학문적 유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다.

- 글로벌영어교육학회 (Global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 대한영어교육학회 (Korea TESOL)
- 아시아영어교육학회 (The Asi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영상영어교육학회 (The Society for Teaching English Through Media)
-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Pan-Korea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Th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
- 한국응용언어학회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Primary English Education)
- 현대영어교육학회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한국영어교육학회는 해외에도 현재 다섯 개의 자매학회와 함께 정기적인 학술 활동 및 학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들 학회는 다음과 같다.

- FEELTA (Far Eastern English Language Teachers' Association) 러시아
- IATEF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국
- JACET (The Japan Association of College English Teachers) 일본
- MELTA (Malaysian English Language Teaching Association) 말레이시아
- Thai TESOL (Thai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태국
- Yanbian University 중국



국내의 학회와의 활발한 교류
(좌) KATE 유관학회 (우) 2012 말레이시아 MELTA 국제학술대회 (2012.5.28.)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한국영어교육학회의 5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회고해 보았다. 지난 50년의 기록을 되돌아보니, 한국영어교육학회의 지난 50년은 쉽 없이 내적, 외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청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눈부신 양적·질적 성장은 우리나라 영어교육 학자들의 열정과 노고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KATE의 50년사는 곧 대한민국 영어교육 학문의 발전 과정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65년 추운 겨울날 연세대학교 어학실에 모여서 대학영어교육의 발전에 대한 비장한 결의를 다졌던 30인의 교수들이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면, 그간의 영어교육학회의 성장에 감탄할 것이고, 그날의 모임이 우리나라 영어교육 학계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깨닫고 흐뭇해질 것임에 분명하다.

앞으로 50년 후 2065년의 한국영어교육학회의 미래는 또한 어떠한 것인가? 지난 50년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겪은 것 이상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영어교육학자들의 열정과 노고가 KATE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한국영어교육학회는 미래에 닥칠 변화의 풍랑 속에서 더욱 더 굳건히 우뚝 서는 세계적인 학술단체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맞이할 60주년, 70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에도 KATE

의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우리나라 영어교육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한국영어교육학회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참/고/문/헌

- 강동호. (2006). 영어교육 학술지 40년 영작연구 회고와 전망.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97~114.
- 권오량. (1995). 한국의 영어 교수 방법과 교수방법론 연구의 변천. *영어교육*, 50(2), 107~131.
- 김영태. (2006). 한국영어교육학회 40년사.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3~20.
- 김임득. (1995). 한국의 영어 습득과 학습이론의 발달. *영어교육*, 50(2), 69~105.
- 김진완. (2006). 한국 영어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 연구방법, 연구성향 및 연구주제.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247~260.
- 김충배. (1995). 한국의 영어교육 연구 방법의 발달. *영어교육*, 50(2), 47~67.
- 박종원. (2006). 영어교육 말하기 논문 40년사의 회고와 전망.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57~72.
- 박준언. (2006). 영어교육에 게재된 영어 어휘 교육 관련 연구 개관.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137~148.
- 배두분. (1989).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배두분. (1995a). 한국의 영어교육학의 발달. *영어교육*, 50(2), 7~45.
- 배두분. (1995b).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발달. *영어교육*, 50(2), 151~180.
- 배두분. (2002). *영어교육학 총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배양서. (1973). 한국 영어교육의 회고와 전망. *영어교육*, 10, 3~8.
- 손동철·김기호·최연희. (2006).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인접 학문의 역할.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219~246.
- 신상순. (1994). 한국영어교육학회 30년사. *영어교육*, 48, 1~15.
- 심지영. (2006). 영어교육을 통해 본 한국 영어 문법 교육과 학습 40년.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115~136.
- 오준일. (2006). 영어교육에 게재된 독해 관련 논문 분석.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73~96.
- 유제명. (2006). 한국영어교육학회 학술대회 현황과 과제.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21~28.
- 이성희. (2006). 영어교육에 게재된 영어 교재 관련 연구 추세 분석.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149~170.
- 이영식. (2006). 한국 영어평가의 연구 발전 40년.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171~199.
- 전임희장단. (2006). 전임희장단 회고록.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263~297.
- 전지현. (2006).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최근 동향과 전망.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201~217.
- 조명원, 이흥수. (2004). *영어교육사전*. 서울: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차경환. (2006). 영어교육 학술지 듣기논문의 학문적 변천 연구. *영어교육*, 61(Special Issue), 31~56.
- 최용재. (1995). 한국의 영어능력 평가의 발전과정: 그 이론과 실제. *영어교육*, 50(2), 133~150.
- 최홍규. (1992). 한국영어교육학회의 40년. *영어교육*, 12, 203~208.